

## 윤석남

YUN SUKNAM



자화상, 2018, 한지에 분채, 142x49cm

### 전시개요

전 시 명 : 윤석남

전시기간 : 2018년 9월 4일(화) - 10월 14일(일)

전시장소 : 학교재 신관

출 품 작 : 설치 및 회화 14점

### 담 당

김한들

02-720-1524~6

## 1. 전시개요

학교재는 2018년 9월 4일(화)부터 10월 14일(일)까지 윤석남(b.1939, 만주) 개인전 '윤석남'을 연다. 윤석남은 지난 40여 년 동안 아시아 페미니즘의 대모로서 평등 사회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온 작가다. 1996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특별전과 2014년 광주비엔날레 등 주요 전시에 참여했다. 이중섭미술상과 김세중 조각상을 받았다. 그는 최근 테이트 컬렉션에서 작품을 소장하며 국제적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오는 11월 스미소니언에서 열리는 단체전에 참여하며 2019년에는 아트바젤 홍콩에서 대형 설치 작품 '김만덕의 심장은 눈물이고 사랑이다'를 선보여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윤석남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어머니라는 주제로 여성의 문제를 다루어 왔는데, 작가 활동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주제로 전시를 펼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윤석남은 1982년 첫 개인전부터 지금까지 여성의 강인함을 '어머니'로 상징화하는 작품을 제작해왔다. 여리고, 버림받은 것을 품을 줄 아는 여성의 힘을 모성에 주목해 풀어낸 것이다. 윤석남은 이러한 작업을 위해 이매창, 허난설헌 등 역사적 여성은 물론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 등을 화면 앞에 등장시켰다. 하지만 그들의 위대함과 감사를 기리는 작업을 꾸준히 펼치면서도 미완의 느낌을 떨치지 못했다. 여든이 되며 정작 자기 자신은 작업 뒤에 서 있었음을 깨달았다.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자 여성 그 자체로 작업 속에 나타나려고 시도했고 그 시도를 처음 선보이는 것이 이번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 윤석남은 채색화 신작과 2018년 버전의 <핑크룸 V>를 포함한 대형 설치 2점을 선보인다. 채색화 신작은 전통 미술 기법으로 그린 자화상들로 작업실과 책거리를 배경으로 무뚝뚝하면서도 친근하게 그려진 작가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핑크룸 V>는 <핑크룸>의 2018년 버전으로 학교재 신관 지하 2층 공간에 맞춰 새롭게 설치한다. 핑크룸 강요하는 유년 시절의 기억에 맞서는 일종의 사회적 고정관념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다.

## 2. 작가소개

윤석남은 1939년 만주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다. 해방되기 이전까지는 만주에서 생활했다. 1954년 병으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6남매와 함께 자랐다. 윤석남의 어머니는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공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면서도 자는 자식들을 깨워 간식을 주며 카드놀이를 하자며 긍정적 낙관을 잃지 않았다. 또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즐겨 읽던 깨어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윤석남에게 작가로서의 근간을 심어주었다.

윤석남은 40세, 불혹의 나이에 붓을 잡았다. 한 가정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주부로서, 남편의 아내로서, 딸을 둔 어머니로서 한계를 느끼던 시기였다. 당시 중년의 여성으로 가사노동과 출산, 양육 등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다하느라 자신을 돌아볼 여력조차 없었던 것이다. 윤석남은 미술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처음엔 '해'로 유명한 시인 박두진에게 서예를 배웠고 이어서 이종무 화백의 개인 화실에서 드로잉과 회화 교습을 받았다.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가정이라는 테두리에 묶여 갈등을 겪던 윤석남의 마음이 치유되었다. 곧, 윤석남은 그림에 내 삶을 걸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2년 동안 끊임없이 드로잉을 연습한 끝에, 1982년 문예진흥원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이후 약 10년간은 그룹 전시를 위주로 활동하였다. 1985년 여성 작가인 김인순, 김진숙과 함께 '시월 모임'을 결성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시월 모임' 동인으로 활동하며 윤석남은 그림이라는 것이 감성만이 아니라 공부를 병행하며 사회를 살펴보고 제작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겪는 불평등에 대항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여성 미술가들의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여성신문 창간에 참여하거나, 여성 문제를 탐구하는 등 여성주의에 대해 배워나갔다. 여성미술가로서의 의식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윤석남이 이 시기에 발표한 작품들은 노동하는 여성의 이미지로 민중미술로서도 중요하게 읽힌다.

윤석남은 어느 순간 작업 방식과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1983년부터 뉴욕으로 유학을 떠나 프랫 인스티튜트 그래픽 센터와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서 공부했다. 비슷한 시기에 유학 생활을 하던 박이소를 비롯한 한국 작가들을 만나면서 동시대 뉴욕 화단에서 일어나는 페미니즘 미술,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설치미술의 새로운 국면들을 체화했다. 첫 개인전 이후 벽에 걸어야 하는 평면 작업에 답답함을 느끼던 작가의 작업 세계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극적인 체험이었다. 그는 이 체험을 '작품이 벽에서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구나.'하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었다고 회상한다. 귀국 후 나무를 이용하여 입체감 있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버려진 나무를 주워 그 위에 먹으로 여성을 새기고 색을 입혔다. 이러한 시도는 곧 설치 작품으로도 연결해 발전했다. 이를 토대로 윤석남은 1993년 금호미술관에서 두 번째 개인전인 <어머니의 눈>을 열었다.

윤석남은 최근 윤석남은 누구인지, 자신을 초상화로 그려가며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본격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채색화인 민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2015년부터는 불화 전문가를 통해 채색화를 배우며 본격적으로 작업에도 반영하고 있다. 윤석남은 민화의 있는 그대로의 순수함과 그 선과 색의 아름다움에 큰 매력을 느낀다고 말한다. 서양의 추상 회화보다는 우리 전통과 문화에 더 긍지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윤석남은 여성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제8회 이중섭 미술상(1996)을 받았고, 이어서

국무총리상(1997) 등을 받으며 여성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996년 베니스비엔날레와 2014년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하기도 했다. 2016년 테이트 콜렉션에서 작품을 소장한 이후에는 그를 아시아 페미니즘의 대모로 평가하며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부장적인 동아시아 문화 속에서 반기를 드는 페미니즘 움직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가로 손꼽힌다. 그의 작품에는 늘 여성이 있다. 윤석남은 현재 경기도 화성에서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며,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3. 전시주제

#### 윤석남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최초로 펼쳐 놓는 전시 - 어머니 너머, 윤석남

이번 개인전은 윤석남이 타인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 마주하고자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윤석남은 1982년 첫 개인전부터 지금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불안한 내면세계를 보여주고 여성이 가진 자애의 힘을 '어머니'라는 주제를 통해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작업의 소재로 이매창, 허난설헌 등의 역사 속 인물부터 자신의 어머니, 시어머니, 어머니로서의 친언니 등 다양한 인물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들의 위대함과 감사를 기리는 작업을 꾸준히 펼치면서도 미완의 느낌을 떨치지 못했다. 여든이 되며 정작 자기 자신은 작업 뒤에 서 있었음을 깨달았다.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자 여성 그 자체로 자신을 작업 속에 나타나려고 시도했고 그 시도를 전시 주제로 잡아 처음 선보이는 것이 이번 전시다.

윤석남,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최초로 펼쳐 놓는 신작들은 모두 채색 기법으로 완성했다. 채색화를 선보이는 것 또한 이번 전시가 처음이다. 화려한 색채 사용으로 눈과 마음에 즉각적 호소를 불러일으키는 민화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작가가 기존에 사용하던 매체를 뛰어넘는 시도를 선보이는 신작들은 현역 작가로서 윤석남의 힘을 보여준다. 윤석남은 김만덕, 허난설헌, 이매창 등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은 역사적 여성 인물을 작품 속에 등장시켜왔다. 여성 미술가로서의 셀 수 없는 고난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변화를 꾀하며 긴 시간 동안 작품 활동을 해내 가는 윤석남의 모습에서 역사적 여성들과 일맥상통함을 볼 수 있다.

#### 윤석남의 작품 세계 - 작가는 지상으로부터 20cm 정도 떠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나에게 예술가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지상으로부터 20cm 정도 떠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예술가가 시대를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지을 때 그렇다는 얘기가. 20cm 정도만 떠 있어도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너무 높으면 자세히 볼 수 없고 현실 속에 파묻히면 좁게 볼 수밖에 없다.'

윤석남이 1999년 국내 신문사에 기고했던 칼럼의 한 단락이다. 윤석남은 조금 떠 있으면 몸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표현하는 작업의 길이 조금 쉬울 것 같다고 말한다. 떠 있으면 자유로워지고 현실에 가려진 상상의 세계로 진입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실을 좀 더 명쾌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은유가 가능해진다고 믿는다. 은유는 곧 예술의 본질이며 예술은 곧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이다. 윤석남의 작품은 여성에 대한 그만

의 성찰이 현실 앞에 쉬지 않고 변화해 온 흔적들이다. 1982년 처음 선보인 어머니의 형상으로부터, 뜻을 펼치지 못한 채 소외당하는 역사 속의 여성들의 모습을 나무에 새긴 작품을 거쳤다. 이후 <핑크룸>과 같은 작품을 통해 자기 존재의 의문을 품는 불안한 여성의 모습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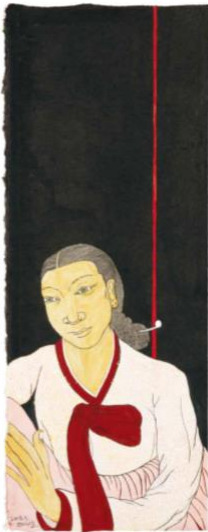
#### 4. 작품설명



자화상, 2017, 한지에 분채, 137x93cm

윤석남은 이번 전시에 자신의 자화상을 다수 선보인다. 그는 자신의 모습과 이야기를 채색화로 담았다. 굳어지지 않는 순수하면서도 담대한 색이 돋보인다. 윤석남은 책가도와 함께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동안 해왔던 작품들과 함께 대범한 자세로 앉아있기도 한다. 현재를 살아가는 윤석남 자신의 당당한 모습이 돋보인다.

2015년 이후 윤석남은 민화에 큰 관심을 가졌다. 지금까지 나무 위에 여성들의 모습을 묘사해온 윤석남의 새로운 시도다. 그는 민화가 버려진 보물 같이라며, 서민들의 소소한 생활과 감정이 있는 그대로 느껴진다고 말한다.



이매창, 2018, 한지에 분채, 40.9x31.8cm

윤석남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2015 SeMA Green : 윤석남-심장> 전시에서 역사 속 여성인 이매창과 손을 마주하는 '종소리'(2002)를 선보인 바 있다. 설치를 선보였던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엔 한지 위에 곱게 분채를 쌓아 이매창의 모습을 담았다. 이매창의 대담한 눈빛을 보면 아직도 그가 살아있는 듯하다.

윤석남은 2003년부터 역사 속의 여성을 주제로 작업해왔다. 허난설헌, 나혜석, 김만덕 등 여성이 지고 있던 사회적 제약과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던 인물들이다. 윤석남은 그들 중 특히 이매창의 이야기를 자주 꺼낸다. 시와 노래에 능했던 조선의 기생 이매창은 당대 성차별적인 사회 제도와 사상 때문에 그 뜻을 펼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가 가졌던 뛰어난 재능은 높이 평가받는다.

윤석남은 1996년에 내보인 첫 번째 <핑크룸>에 다시 한번 숨을 불어넣는다. <핑크룸>은 미적 요소나 적절한 조형 언어의 모색 또한 주제만큼 중요하다고 믿는 작가의 대표작이다. 1996년처럼



핑크룸 V, 1996-2018, 혼합매체, 가변설치

바닥에는 구슬을 흩뿌리고 3인용 소파를 배치한다.

윤석남에게 <핑크룸>은 윤석남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다. 윤석남은 늘 자유롭게 살고 싶은 갈증을 느꼈다. 여성의 삶에서 욕구를 억눌러야 하는 현실과 자유를 추구하는 갈등의 양상은 전투적인 형광 핑크색으로 표출된다. 소파의 쿠션에는 날카롭고 뾰족한 갈고리가 곳곳에 서 있다. 앉아서 쉬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소파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 <핑크룸>의 의자는 이탈리아풍을 모방해 화려한 서양식 의자로 제작됐다. 하지만 의자에 있는 여성의 옷은 한복이다. 서양식 의자에 한국의 옷. 어색하고 묘한 조화처럼, 어디에도 있지 못하는 불안한 여성들의 자리를 표현한다.

<핑크룸>을 구성하는 다수의 화려한 요소를 제치고 관람객의 눈길을 끄는 것은 소파 위에 앉아있는 여인의 눈동자다. 두려움 없이 정면을 응시하는 눈동자는 강한 심리적 자의식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선구자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 5. 전시서문

### 윤석남의 여성주의 미술: 여성 그 중심에 서다

정연심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교수

폐재와 빨래판 등으로 만들어진 패널 위에 그려진 윤석남의 <어머니>는 투박한 나무의 질감을 그대로 살렸다. 이 작품은 회화적이기도 하고 조각적이기도 하며, 나무를 이어붙인 콜라주처럼 보이면서도 입체감과 평면성을 동시에 지닌 기이한 작품이다. 작가는 나무를 갈아내고 또 그 표면을 그을린 뒤 작은 조각들을 서로 이어 형태를 만들어 낸다. 그 패널 위에 윤석남은 어머니의 형상을 만들며, 초상화를 완성시켜 나간다. 사진에서 출발한 작품이지만, 이 작품은 사진에서 느낄 수 없는 어머니의 강한 페르소나를 전달하는 동시에,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정면을 응시하는 강한 심리적 자의식을 느끼게 한다. 어머니는 그의 작업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한복을 입고 시선을 정면에 두고 있으며, 선구자적 모습으로 우리의 관심을 모은다. 세월의 흔적을 녹여낸 이러한 <어머니>라는 제목의 폐목 작업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작가 개인의 어머니로 비춰졌지만, 점차 20세기 한국의 역사를 관통하는 상징성과 보편성을 띤 '어머니'로 아이콘화되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미술가인 윤석남은 미술계에 상당히 늦은 나이에 입문했다. 그의 삶은 프랑스 태생의 루이즈 부르주아를 연상시키듯, 40세에 시작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집 안에 작업실

을 만들어 인물 초상을 그리면서 시작하였다. 그는 당시의 모든 여성들이 그러하듯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였고 또 주부 생활을 10년 이상하면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한 열정은 단순한 취미로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삶을 드로잉이나 조각적 설치, 회화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하고 고발하며,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기를 제안해오고 있다.

20세기 초반 한국 근대의 신여성들은 대부분 일본이나 유럽에서 유학을 하면서 신교육을 받았고 엘리트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신분을 가졌으나 대부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 가부장제와 남성 중심의 권위에 도전했던 삶은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했으며, 예술적 평가에 대한 영예와 달리, 그들은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이혼을 하거나 혹은 비참한 삶을 영위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의 페미니즘은 여전히 집단적인 미술가들의 활동보다는, 개별적 활동에 머물렀다. 또한 여성미술가라고 해서 여성성(femininity)을 미술 내에서 재현하려는 의식적 시도도 많지 않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주의가 등장하고 여성들의 패션 또한 상당히 현대적으로 바뀌었지만, 독재주의적인 사회정치적 상황만큼이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의식과 태도는 보수적이었고 관습적이었다. 윤석남은 여성에 뒤따랐던 관습적 태도를 미술 언어를 이용하여 대항하고 저항한 작가이다. 그의 미술은 극히 개인적이지만, 당시의 시대적 언어를 잉태하고 있으며, 여성의 관점에서 사회를 다시 보고 여성을 다시 보며, 여러 세대에 걸쳐 여성들이 겪었던 삶의 내러티브를 구축한다.

윤석남의 작품은 1980년대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관습적 인식에 역행하면서, 여성을 새로운 일상과 역사의 한 중심에 놓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선구적 페미니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80년대 초 중반부터 여성 미술가들이 처음으로 한국 사회에서 겪는 불평등에 대항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윤석남은 여성의 관점에서 한국 미술의 재현에 뒤따르는 시각성(visibility)을 여성의 관점에서 해체하고,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화적이고 시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이야기가 있는 드로잉을 그리거나 자신의 경험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재현적 이미지로 표현했다. 때때로 선은 투박하고 인체의 비율은 맞지 않지만 섬세한 색감, 표면의 질감은 윤석남 고유의 미술 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강한 생명력을 지닌 연꽃을 통해서도 불교적인 색채를, 수없이 많은 유기건을 통해서도 버려진 생명에 대한 강한 애정을 전달한다.

많은 여성미술가들은 여성성과 여성적 공간을 미술 작품을 통해 구현하거나 재현하면서도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불리는 것에 주저하기도 했다면, 윤석남은 여성미술가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미술가로서의 의식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었다. 또한 1980년대부터 한국 여성 미술가들이 페미니즘 미술에 뒤따르는 강한 여성 이미지를 통해 여성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거나, 남성 중심의 사회를 고발하기 위해서 여성성을 강력하게 전복시키는 등의 작업들을 전개할 때, 윤석남은 "여성의 시각"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온 여성들에 대한 억압된 기억을 개인적 서사를 통해 풀어내고 있다. 그 안에선 어머니를 통해 타자화된 공감과 감정이입이 내재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어머니,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언니들을 통해 기억된 여성에 대한 이야기, 버려진 삶을 다룬 이야기를 재현한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는 되풀이되고, 기억은 여러 세대를 걸쳐 전승된다.

### 윤석남: '나'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

윤석남은 40세의 나이로 1980년대 초반부터 한국 화단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시작 당시부터 어머니를 모델로 인물, 초상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모델로 해서 직접 인물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 이후 <어머니> 연작으로 이어진 패널 작품들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그는 <어머니>라는 나무에 채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채색된 나무 부조, 혹은 조각은 흔히 서구에서는 '폴리크롬' 조각으로 불리기도 했다. 채색 조각은 모노크롬 조각에 비해 주로 포크아트나 민화의 채색을 연상시킨다. 불교 조각의 경우, 사천왕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색채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이전에 마을 어귀에 서 있던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처럼 친근하기도 하지만 대신 엄숙한 분위기를 동시에 연상시킨다. 이러한 조각들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일종의 토

템처럼 동네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학교재에 이번에 전시된 작품 중에서 민화의 책거리를 배경으로 한 윤석남의 자화상 세 점은 이러한 전통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 보인다. 조선 시대 민화는 양반들이 그렸던 수묵이 추구했던 문인화풍의 엘리트 정신에 대항하여 뛰어난 상상력을 구현하고 있었고, 화려한 색채로 서민들의 눈과 마음에 즉각적으로 호소했다. 윤석남은 민화풍의 자화상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지각했던 그림이 아니라, 마음과 감성에 호소하는 민화의 특징을 이용한다.

본래, 윤석남은 1985년 김인순과 김진숙과 함께 '시월모임'전을 열었는데,<sup>1</sup> 초기의 작업은 노동을 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당시 '시월모임'전은 관훈미술관에서 1985년 개최되었는데, <무제>라는 작품은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얼굴이나 손을 부분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민중미술의 맥락 내에서 읽혀졌다. 당시 윤석남은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하는 여성의 이미지와 더불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당하는 불평등을 그린 그림들도 있었다. 보통 여성들은 사회 내에서 수동적인 존재로서 여성의 주체성은 주로 무시되거나 마치 정물화처럼 아무런 의식 없이 부차적인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윤석남은 일하고 있는 여성의 노동을 재현함으로써, 한국의 미술사에서 별로 다루지지 않았던 '노동'의 주제와 더불어 '노동자계층'과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미술계에 등장했다. 물론 근대기 미술가들이 일하는 장면이나 휴식을 취하는 장면을 그렸지만, 이렇게 사회적 의식을 가진 노동의 장면은 많지 않았다. 이러한 초기에 그려진 작업들은 <L 부인>(1985년 추정),<sup>2</sup> <얼굴 없는 학살>(1987), <청량리 588번지>(1988) 등인데, 여기에는 시장에서 일하는 한국의 '아줌마' 뿐 아니라, 당대의 불안한 정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작품, 또한 지금은 사라진 청량리의 사창가 등을 통해 한국 사회 속에서 음성적으로 존재했거나 사회적 치부로 여겨지는 이미지들이 등장한다.

당시 민중미술 내에서도 이와 같은 주제는 다루졌다. 그러나 남성 미술가들은 남성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윤석남의 여성 이미지는 민중미술과 그 맥을 같이 하지만, 민중미술 내에서도 여성의 목소리를 주체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그것은 여성을 미술의 중심부로 전환시키는 액티비즘이었던 동시에, 사회 계층 내에서도 중하층 계급을 주로 다룸으로써 미술의 주제로 인식되지 못한 주제들을 중심부로 이동시키는 주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작품들은 1986년에 개최된 '제2회 시월모임전, 반에서 하나로', 1988년에 개최된 '여성해방시대 그림의 만남' 등을 통해 여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는 여성의 이야기를 그림의 중심 화두로 이끌어낸다.<sup>3</sup> 윤석남의 "여성"은 남성들을 통해 투영되거나 재현된 '자동기계인형(automaton)' 같은 여성이 아니라, 투박한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감있는 여성이다.

윤석남은 지금까지도 자화상을 끊임없이 그린다. 그것은 자신과의 대화법이기도 하며, 수많은 자화상은 닮아있지만, 결코 같은 이미지는 아니다. 백발로 변한 머리카락은 작가 자신의 의식만큼 투명하고 생동감 있게 살아 숨 쉰다. 민화를 배경으로 화면의 중앙이 아닌 약간 가장자리 쪽에 위치한 자화상은 책거리와 같은 이미지를 가져옴으로써 여성들은 접근이 불가능했던 책이라든가 지식에 대한 갈망과 소유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윤과 같은 민중미술가들도 우리의 전통 민화 등에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윤석남에게 민화는 익명의 사람들이 그렸던 무명의 그림이면서 과거의 시간, 전통을 상징한다.

이렇듯, 윤석남은 자신의 경험에서 출발한 서사를 중심으로 한다. 그의 어머니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여섯 명의 자식을 키웠는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어머니 개인에 대한 기억과 함께 당대를 살았던 다른 어머니의 유사한 기억을 함께 소환해낸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마치 세대 간에 이어지거나 이야기를 통해 세대 동안 억압당했던 목소리를 마치 큰 소리로 메아리치게 하는 효과를 만든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영향을 미치면서 윤석남은 그의 그림 속에 드러나는 사회적 의식을 다른 사람

<sup>1</sup> 시월모임전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국의 페미니즘 미술사에서 중요한 전시로 평가받는다. 『시월모임전』, 서울: 관훈미술관, 1985 전시 도록.

<sup>2</sup> 이 작품의 제작연도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참고: 김현주, 「윤석남 아카이브 구축과 작품의 재평가」, 『현대미술사연구』 43 (10186), p. 71.

<sup>3</sup> 김현주, 「1980년대 한국의 '여성주의' 미술」, 『현대미술사연구』 23 (2008.6), pp. 111-140 참조.

들에게 파급하는 결과를 만든다. 특히,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을 소환하기 위해서 윤석남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여성들을 작품 속에 재현하거나 재구성하는데, 구체적으로는 2002년부터 황진이, 허난설헌, 이매창, 최승희, 나혜석 등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들 여성은 개인적 배경은 다르지만, 시대를 앞서갔던 여성들로 윤석남의 작품에서는 나무에 아크릴로 채색된 이미지로 등장한다. 그들은 미술관에 설치되거나 자연 속에 놓이는데 고상하고 이상화된 여성 이미지가 아니라 나무 조각으로 이어진 패널로 구성된 이미지의 파편들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스러움'을 전복시키는 이미지로 보인다. 그것은 억압되었던 것들이 해방된 이미지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윤석남의 '회화적 조각'은 억압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분출하는 효과를 지니는데, 나무라는 소재는 자연, 대지, 여성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또 다른 제유법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윤석남의 '핑크룸': 여성의 집, 여성=집

윤석남은 1979년 미술계에 입문한 이후 1983년과 1984년에는 뉴욕에서 공부하면서 아트 스튜던트 리그 오브 뉴욕과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드로잉을 배웠다.<sup>4</sup>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국의 박이소 작가도 뉴욕으로 건너가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1985년부터는 마이너 인저리(Minor Injury)라는 대안공간을 뉴욕 브루클린의 그린포인트에서 운영했다.<sup>5</sup> 윤석남은 뉴욕에서 박이소를 비롯, 한국 작가들을 만나면서 동시대 뉴욕 화단에서 일어나는 페미니즘 미술,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설치미술의 새로운 국면들을 한국의 어느 작가보다 가장 가까이서 체화할 수 있었다.

그는 1988년 민중미술이 열렸던 아트 스페이스의 전시, 1993년 퀸즈미술관에서 개최된 '태평양을 건너서: 오늘의 한국미술' 전시 등을 모두 기억할 정도로 한국미술이 국제미술과 교감을 이뤘던 시기에, 가장 중심에 서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시작했다.<sup>6</sup> 1993년 이후의 <어머니> 연작들 대신, 윤석남은 여성 스스로의 욕망을 드러내는 <핑크룸>을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핑크는 소녀 시절부터 여아들이 즐겨 입는 상투적인 컬러이다. 핑크 드레스, 핑크빛 환상, 핑크빛 사랑 등 유년 시절부터 길들여지는 '핑크'는 소녀틱한 감수성과 영원한 귀여움을 알레고리적으로 보여주는 색채이다. 온통 모든 공간을 물들어 놓은 '핑크룸'에는 핑크빛 소파가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다. 주변을 에워싸는 한지와 거울 등 핑크빛은 익숙하지만, 한편으로는 익숙하지 않은 언캐니한 느낌을 울컥 불러일으킨다. 소파는 누군가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상징하지만, 이 핑크 의자는 누군가가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보이는 의자이며, "불안한 여성들의 자리"를 표상한다.<sup>7</sup> 핑크색은 누군가에게 반복-강박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우리를 억눌렀던 감정들을 소환한다. 여자아이라면 언제나 핑크빛 아이템 하나 정도는 있는데 이런 유년 시절에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분홍색 드레스, 장난감, 가방 등 모든 소품들에 대한 기억을 고집어내는 역할을 한다.

윤석남은 1996년 처음으로 <핑크룸>을 제작한 이후, 여러 형태, 여러 형식의 변형을 거쳐 <핑크룸>, <그린룸> 등을 제작하는데 전시와 공간의 성격에 맞게 장소특정적으로 연출하고 새롭게 설치하기도 한다.<sup>8</sup>

<sup>4</sup> 윤석남은 이후 1990년-91년 미국으로 가서 다시 체류하게 된다 (김현주 논문 참조, pp. 74-75. 윤석남은 당시 뉴욕의 브롱스미술관에서 전시 중이었던 쿠바 현대미술전에서 알레한드로 아귀레라(Alejandro Aguilera, b. 1964)가 제작한 폐목 조각(En el de mas Americas)/미대륙의 바다 위에서, 1988)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윤석남과의 인터뷰, 화성 작업실, 2018년 7월 12일.

<sup>5</sup> 윤석남은 두 번째 뉴욕 체류기에 '박모'로 활동하던 박이소를 만났었다고 설명한다; 윤석남과의 인터뷰. 김현주의 논문(2018)에 의하면, 윤석남은 "뉴욕의 재미작가들의 모임인 '서로문화연구'의 회원"이었다고 한다. 당시 회원에는 김진숙, 박이소, 최성호, 최인영, 김미혜, 민영순 등이 있다.

<sup>6</sup> "Min Joong Art: A New Cultural Movement from Korea," Artists Space, 1988; "Across the Pacific," Queens Museum, 1993; Kumho Museum of Art, 1994.

<sup>7</sup> 윤난지, 「윤석남의 또 다른 미학」, 『윤석남 심장』, 서울시립미술관, 2016, p.53.

<sup>8</sup> 윤석남은 핑크 룸 이전에도 <어머니의 방> 등 '방'과 연관된 주제를 일부 다루었으며, <핑크룸>이외에, <그린룸>, <블랙룸>, <블루룸>, <화이트룸> 등이 존재한다. 김현주 외, 『핑크 룸 푸른 얼굴: 윤석남의 미술세계』, 서울: 현실문화, 2008 참조.



같은 주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지만 한 번도 동일한 패턴의 장식이나 유형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차이와 반복을 여러 번 제시하면서 같은 주제를 다른 양상으로 변화시킨다. 학고재에 이번에 설치되는 <핑크룸 V>도 핑크를 강요하는 유년 시절의 기억에 맞서는 일종의 사회적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러한 특정 젠더에 가해지는 사회적 고정관념은 여성성을 불변하는 성향으로 고착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수동성을 시각적으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윤석남은 이러한 고착화된 사회적 통념을 해체시키는 예술적 제언을 통해 여성성은 생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취향에서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생성될 수 있는 성격을 강조한다.

윤석남의 의자들은 서구의 대표적인 가구로 한국의 아파트문화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파나 의자들이다. 의자는 도상학적으로 사회적 신분이나 권위, 혹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많이 표현된다. 그러나 윤석남의 의자는 쉽게 앉을 수 없도록 불편하게 되어 있으며, 누군가 앉을 경우 상당히 고통스러운 정도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의자들이다. 여성의 방은 흔히 규방 문화를 상징하는 듯한데, 윤석남은 여성을 실내의 공간, 가정이라는 공간에 가둠으로써 여성을 공공의 장소로, 개방된 공간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던 한국의 현실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가한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몸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자궁으로 생명과 온기, 사랑의 거처로 상징화되었다. 자궁은 따뜻하고 축축한데 이러한 생물학적인 특징은 전통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을 가정에 가둠으로써 양육하고 요리하는 여성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현모양처'라는 말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교육이 형성되던 시기에도 사라지지 않던 덕목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에 대한 고등교육이 시작되면서 '현모양처'를 요구하는 덕목은 근대기의 가정과 사회에서 더욱 이데올로기화되어 갔다.

여성의 몸은 일종의 집과 같은 공간이며, 여성적 공간은 집과 같다는 인식은 윤석남의 작업에서 페미니즘 주제로 자주 다뤄진다. '핑크룸' 또한 이러한 공간을 여성의 공간으로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이데올로기화되었는지 제시해준다. 윤석남의 핑크룸 실험은 '방'이라는 가정 내에서의 공간에 갇혀 있던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공간이며, 여성의 몸을 방, 집과 같이 생각해온 우리의 전통에 대한 공격이자 저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윤석남의 궤적은 동시대 서구의 다른 작가들에게도 엿보였는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여성에 가해지던 여성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이를 해체하고 문제시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페미니스트 미술가들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윤석남의 '핑크룸'과 루이즈 부르주아의 작품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여성의 몸을 집/방과 같은 공간으로 인식했는지, 스페인 작가인 엘레나 알메이다(Helena Almeida)가 <집(The House/A Casa)>(1983)을 통해 어떻게 집을 여성으로 인식하는지, 나아가 리지아 클락(Lygia Clark)이 <집은 몸이다(The House is the Body)>(1968)라는 작품을 통해 여성의 몸은 집과 같은 건축적 공간의 산물로 인식하는지 비교해볼 수 있다.<sup>9</sup> 공교롭게도 이들은 각기 다른 도시에서 여성의 방과 여성의 몸에 가해졌던 억압과 분노, 여성의 욕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사회의 요구로, 가정의 요구로 늘 여성의 욕망은 은폐되었거나 재현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윤석남은 여성의 욕망을 거짓 없이 드러낸다.

윤석남의 페미니스트 작품들은 한국의 역사에서 존재했던 여성들을 실제로 초상화로 재현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잊혀나간 여성들을 한 명씩 동시대의 사회로 소환시킨다. 사실, 여성사를 초상화의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문제는 문학적 상상력이나 회화적 상상력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왜냐하면, 나혜석과 같은 근대기 여성 미술가의 경우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그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지만, 많은 여성들은 그들의 초상화가 남아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비슷한 초상화를 재현하는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다. 역사적 초상화들과 함께 윤석남이 이번에 학고재에서 보여주는 가족의 초상에는 남성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머니, 언니, 그리고 자신의 가족초상을 통해 세대를 이어나가는 여성의 소서사에 집중하게 한다.

## 윤석남의 여성적 글쓰기

조.

<sup>9</sup> 루이즈 부르주아의 <여성 집(femme maison)>(1946-47)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15년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된 <2015 SeMA Green: 윤석남-심장> 전시는 1980년대부터 제작된 작업을 모두 보여주었던 작가의 대회고전이었다. 당시 상당히 많이 전시되었던 유기견은 미술관 전시장에서 모두 보여주지 못했을 정도로 많았으며, 어느 방을 가득 메운 연꽃은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것 같은 생명력을 발산하였다. 폐목 패널에 그려진 여성의 모습, 그것은 마치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풀을 사랑으로 쳐다보는 응시와도 같게 느껴진다. 서툴게 그려진 투박한 손, 해부학적으로 다소 이상하게 조합된 신체, 나무 패널에 부유하는 듯이 그려진 여성의 얼굴, 가면처럼 이목구비만 그려진 패널, 이 모든 것은 여성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타자들을 초대하는 거대한 잔치였다. 이러한 투박한 패널과 서로 대리 보충으로 존재하는 윤석남의 드로잉은 여성들을 다시 그 중심에 서게 한다. 작가의 작품처럼 "나의 할머니, 단기 4268, 4.13 일에 첫 딸을 낳으셨다. 그 딸이 다시 외할머니가 되셨다 (2001년 2월 23일)"라는 텍스트들은 남성들이 설명할 수 없었던 여성의 글쓰기로 제안된다. 그는 일기를 쓰듯이 그림을 그리며, 그림을 그리듯 텍스트를 써 내려간다. 글과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그에게 자매예술로서 남성 미술가들이 주목해주지 않았던 소소한 이야기, 여성들이 차별당한 이야기, 그냥 피식 웃게 하는 상상력으로 가득한 이야기 등으로 쓰여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윤석남의 여성은 귀엽고 사랑스럽다. 아니, 때로는 위협적이며 무뚝뚝하며 동시에 친근하다. 그것은 그냥 우리 주변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 6. 작가약력

1939     만주출생  
 1983-84   프랫 인스티튜트 그래픽 센터, 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 오브 뉴욕, 뉴욕  
 현재 서울에서 거주 및 화성에서 작업

## 개인전

- 2018     윤석남, 학교재, 서울**  
 윤석남, 해움미술관, 수원
- 2017     윤석남, 이상원미술관, 춘천  
 기억공작소 사람과 사람 없이-윤석남, 봉산문화회관, 대구  
 마침내 한 잔의 물이 되리라, 자하미술관, 서울
- 2016     빈 방, 학교재 상하이, 상하이
- 2015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윤석남-심장,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 갤러리, 제주  
 2015 SeMA Green: 윤석남-심장,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13     윤석남: 나는 소나무가 아닙니다, 학교재, 서울
- 2011     핑크룸 5,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윤석남 1,025-사람과 사람 없이, 송파구립갤러리 수(水), 서울
- 2009     윤석남 초대전, 부산아트센터, 부산  
 윤석남 개인전, 학교재, 서울
- 2008     윤석남 1,025: 사람과 사람없이, 아르코미술관, 서울
- 2004     윤석남 개인전, 열린화랑(김재선 갤러리), 부산

- 2003 늘어나다, 일민미술관, 서울  
윤석남 개인전,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 1998 윤석남 개인전,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 1997 빛의 파종,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아트 스페이스 서울, 서울; 학고재, 서울
- 1996 윤석남 개인전,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윤석남 개인전, 조현화랑, 부산
- 1993 어머니의 눈, 금호갤러리, 서울
- 1982 윤석남 개인전, 미술회관, 서울

## 단체전

- 2018 Upcoming 세계의 초상화들: 한국, 스미소니언박물관, 내셔널포트레이트갤러리, 워싱턴 D.C.
- 2017 윤석남, 방정아-두 엄마,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부산  
보고 싶은 얼굴, 이한열기념관, 서울  
아시아 여성미술가들,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 2016 한반도의 사실주의,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뮤지엄 카젠 아트센터, 워싱턴 D.C.  
사회 속 미술-행복의 나라,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조각적 전회, 모란미술관, 남양주  
공재恭齋, 녹우당에서 공재를 상상하다, 녹우당, 해남  
다정해서 다정한 다정씨, 복합문화공간 에무, 서울  
skyA&C 아틀리에 스토리-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22인의 작업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미항사 자하루미술관, 해남  
동시대 아티스트들의 표현, 도쿠시마시현립근대미술관, 도쿠시마, 일본
- 2015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 어머니,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디 어워즈-그리고 만나다,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코리아 투모로우 2015, 성곡미술관, 서울  
용한점집, 자하미술관, 서울  
2015 풍류남도 아트프로젝트-동백매화 화첩 펼쳐보기, 행촌미술관, 해남  
미술관 동물이야기,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 2014 마음의 기억-이너 보이스, 단원미술관, 안산  
레트로\_’86~’88 “한국 다원주의 미술의 기원”, 소마미술관, 서울  
비엔날레 아카이브-한국 현대미술 비엔날레 진출사 50년, 부산문화회관, 부산  
제10회 광주비엔날레 ‘터전을 불태우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한국의 초상미술-기억을 넘어서,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2014 태화강 국제 설치미술제 다리, 연결된 미래, 울산교, 울산  
선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13 누락된 기록-어느 위안부 할머니의 기억, 복합문화공간 에무, 서울  
마음해인아트프로젝트2013, 해인사, 합천  
윤석남 최인호 2인전, 갤러리 아쉬, 파주  
제3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2013 정전60년 특별 기획전 백령도 525,600 시간과의 인터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어느 노병의 이야기-60년의 기억, 130년의 우정, 아시아하우스, 런던

- 인물 파노라마,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 한국현대미술의 흐름 VI-여성주의,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김해
- 가족이 되고 싶어요-반려동물 이야기, 경기도미술관, 안산
- 탐하다,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 자연, 동동(童動), 라임유치원, 부산
- 2012 여성+몸,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서울; 빛고을시민문화관 미디어큐브338, 광주
- 제2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평화의 바다\_물위의 경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12 리버풀 비엔날레 테라갤럭시아, 리버풀 존무어대학 코퍼러스힐 빌딩, 리버풀, 영국
- 2012 익산국제돌문화프로젝트, 익산중앙체육공원, 익산
- 숨, KCDF갤러리, 서울
- 우먼 인-비트윈: 아시아 여성작가 1984-2012,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 10명의 큐레이터가 제시하는 10개의 미래-Belonging, 속하거나 혹은 갈망하거나,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한국 근현대미술 특별기획전 여기 사람이 있다,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모성,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 한국현대미술\_거대서사1,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80년대 인간전 그 이후, 오늘의 동향, 정문규미술관, 안산
- 2기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플랫폼 아티스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11 한국미술100년 삶·자연·예술, 암웨이갤러리, 성남
- 창·창·인·생 創·創·人·生, 경기도미술관, 안산
- 삶과 풍토, 대구미술관, 대구
- 조각가의 드로잉, 소마미술관, 서울
- 제1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가인(佳人)-동양미술 속의 아름다운 사람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 비형식의 논증, 자하미술관, 서울
- 코리안 랩소디: 역사와 기억의 몽타주,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 2011 인천상륙작전(作展),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10 위킹 맘마미아: 그녀들에게는 모든 곳이 현장이다, 국립여성사전시관, 서울
- 한국드로잉30년: 1970-2000, 소마미술관, 서울
- 춘추(春秋), 학교재, 서울
- 강진 셀라돈 아트 프로젝트 2010\_강진에서 청자를 만나다, 강진청자박물관, 강진
-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 63 스카리아트 미술관, 서울
- 노란선을 넘어서, 경향갤러리, 서울
- 타임머신, 얼 갤러리, 서울
- 경기도의 힘, 경기도미술관, 안산
- 컨템퍼러리10인전, 김재선갤러리, 부산
- 2009 거울아, 거울아-그림 속 사람들 이야기,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과천
- 루씨와 오렌지미술관, 헬로우뮤지움, 서울
-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개관기념전, 현대미술의 응시,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부산
- 2009 평화미술제-대지의 꽃을 바다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 예술의 새로운 시작-신호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85호 크레인-어느 망루의 역사, 평화공간 SPACE\*PEACE, 서울
- 2008 언니가 돌아왔다, 경기도미술관, 안산

- 페미니즘 여성작가 3인 초대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  
 여성주의 작가 3인 특별초대전, 당진문화원, 당진  
 티베트의 길 위에서 평화를 연다, 평화공간 SPACE\*PEACE, 서울  
 이중섭미술상 20년의 발자취-역대 수상작가 20인,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데일리 라이프 인 코리아, 퀸즈갤러리, 방콕  
 꿈엔들 잊으리야, 페스티벌 하우스, 통영  
 메모리즈, 김재선갤러리, 서울
- 2007 경기, 1번국도, 경기도미술관, 안산
- 2006 여성·일·미술 - 한국미술에 나타난 여성의 노동,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여자를 밝히다, 브랜드를 밝히다, 페이퍼테이너 뮤지엄, 서울  
 상:상의 힘, 고려대학교 박물관, 서울
- 2005 동방의 신비-앙코르왓 기행전, 거제문화예술회관, 거제  
 기생, 서울옥션 센터, 서울  
 사람·집·가족, 제비울미술관, 과천  
 광복60주년기념 한국미술100년(1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쿨&웜, 성곡미술관, 서울
- 2004 금호미술관 개관 15주년 기념전, 시선의 발현과 전개, 금호미술관, 서울  
 집의 숨·집의 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영암도기문화센터, 영암  
 2004 찾아가는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바그다드 551km, 제비울미술관, 과천  
 일상이 담긴 미술,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정치와 움직임, 서울올림픽미술관, 서울  
 예술의전당 특별기획전 Ⅱ, 구성&중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지겐-서울-지겐-서울, 지겐란트박물관, 지겐, 독일  
 룩&씨-엠플루트 랜드스케이프, 성곡미술관, 서울  
 평화선언 2004 세계 100인 미술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3인의 페미니즘, 한국미술관, 용인  
 블루,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보더라인 케이스 경계선상의 여성들, A.R.T., 도쿄
- 2003 매달다,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자연의 속삭임, 제비울미술관, 과천  
 기운나는 이름, 어머니, 문화일보 갤러리, 서울  
 우리시대 삶과 해학, 세종문화회관, 서울  
 한독 여성 작가 교류전-여자의 열두 계절, 문화일보 갤러리, 서울  
 조국의 산하-반전·평화, 대안공간 풀, 서울  
 한국현대조각특별전, 조각이란 무엇인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02 제2회 여성미술제, 동아시아 여성과 역사, 서울여성플라자, 서울  
 만해 시화전, 백담사, 인제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민족미술 20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 2001 오월정신전 "행방불명",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가족,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공상과 창조전 Ⅲ, 가족-한국현대미술, 가스가이시민문화회관, 가스가이, 일본

- 2000 제3회 광주비엔날레, 인간(人+間),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 호암미술관, 서울  
 제1회 흙의 예술제 구림마을 프로젝트 1, 영암도기문화센터, 영암;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제12회 시드니 비엔날레, 뉴스우스웨일스주립미술관,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
- 1999 99 여성미술제-팔쥬들의 행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90년대 미술의 정황, 엘렌 김 머피 갤러리, 서울  
 Korea+JAALA-동북아와 제3세계 미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이중섭미술상 10년의 발자취-역대 수상작가 10인,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공원 속의 미술과 사람&이벤트, 여의도 시민공원, 서울  
 현실바로보기, 웅전갤러리, 서울  
 몽유금강夢遊金剛\_그림으로 보는 금강산 300년, 일민미술관, 서울  
 1999년의 자화상, 갤러리 퓨전, 서울  
 공연 속의 조각전, 서제스천, 국립중앙극장, 서울
- 1998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제1회 타이페이비엔날레 '욕망의 장소', 타이페이 시립미술관, 타이페이  
 전통과 새로운 형태: 한국현대미술, 하트포드 대학 조셀로프 갤러리, 하트포드, 미국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건립기념전, 위안부 기념관, 나눔의 집, 광주  
 서울올림픽 10주년 기념 야외조각 심포지엄, 올림픽조각공원, 서울
- 1997 우리시대의 초상-아버지, 성곡미술관, 서울  
 대결 III, 벨란센터, 토리노, 이탈리아  
 마니프(MANIF) 3! 97 서울국제아트페어,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아파트먼트-사물과의 우연하고 행복한 만남, 갤러리아트빔, 서울
- 1996 제8회 조국의 산하, 강-내일로 흐르는 삶의 도도함처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전국환경미술제, 경기도문예회관, 수원  
 90년대의 한국미술-등신대(等身大) 이야기, 도쿄국립근대미술관, 도쿄; 국립국제미술관, 오사카, 일본  
 제2회 아시아태평양현대미술트리엔날레, 퀸즈랜드미술관, 브리즈번,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의 현대미술-전통과 긴장, 아시아 소사이어티, 뉴욕  
 한국 모더니즘의 전개 1970-1990: 근대의 초극, 2부 모더니티·대중·표현, 금호미술관, 서울  
 1996 인간의 해석, 갤러리사비나, 서울  
 미술로 본 20세기 한국인물, 노화랑, 서울
- 1995 한국현대미술 15인-호랑이의 꼬리, 팔라초 벤드라민 아이 카르미니, 베니스, 이탈리아  
 제6회 작은 조각 트리엔날레: 유럽-동아시아, 슈드베스트엘비포럼, 슈투트가르트, 독일  
 한국(韓國), 100개의 자화상(自畫像), 조선(朝鮮)에서 현대(現代)까지, 서울미술관, 서울;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싹, 아트선재센터, 서울  
 여성·역사 새롭게 보기 혹은 넘어서기, 가람화랑, 부산  
 한국 미술 '95 질·량·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해방50년 역사미술전,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프리미티브즘, 모란미술관, 남양주  
 95 한국 여성미술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현대미술, 중국미술관, 베이징  
 한국현대조각의 오늘, 종로갤러리, 서울

- 우리시대 거울보기, 동아갤러리, 서울
- 1994 자존의 길 II, 금호갤러리, 서울  
 기술과 정보 그리고 환경의 미술, 엑스포 과학공원 재생조형관, 대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전시회-새야 새야 파랑새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민중미술 15년: 1980-199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93 여성, 그 다름과 힘, 한국미술관, 서울  
 태평양을 건너서: 오늘의 한국미술, 퀸즈미술관, 뉴욕; 금호갤러리, 서울  
 기대와 예감, 박영덕화랑, 서울  
 개관기념전, 코아트갤러리, 서울  
 신작초대전-현대미술의꽃, 그림마당·민, 서울  
 그녀의 이야기 II, 바당골예술관, 서울
- 1992 제6회 여성과 현실, 그림마당·민, 서울
- 1988 여성 해방시와 그림의 만남, 그림마당·민, 서울  
 제2회 여성과 현실전, 그림마당·민, 서울
- 1987 제1회 여성작가 40인의 그림잔치-여성과 현실, 무엇을 보는가?, 그림마당·민, 서울  
 87인간전, 그로리치화랑, 서울  
 민족미술협회 반고문전, 그림마당·민, 서울
- 1986 제2회 시월모임전, 반에서 하나로, 그림마당·민, 서울  
 40대 22인전, 그림마당·민, 서울
- 1985 제1회 시월모임전, 관훈미술관, 서울
- 1982 제1회 82인간11전, 관훈미술관, 서울

## 수상

- 2015 제29회 김세중 조각상, (재)김세중기념사업회, 서울
- 2007 제4회 고정희상, (사)또하나의문화, 서울
- 1997 국무총리상, 서울
- 1996 제8회 이중섭 미술상, 조선일보사, 서울

## 소장

- 테이트컬렉션, 런던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퀸즈랜드 미술관, 브리즈번, 오스트레일리아
- 후쿠오카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 벨란미술협회, 토리노, 이탈리아
- 미에현립미술관, 츠, 일본
- 타이페이 시립미술관, 타이페이
- 올림픽공원, 서울
- 나눔의 집, 광주
- 일민미술관, 서울
- 쌈지스페이스,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국립여성사전시관, 고양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금호미술관, 서울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도치기현립미술관, 우츠노미야, 일본

도쿠시마시현립근대미술관, 도쿠시마, 일본

아르코미술관, 서울

경기도미술관, 안산